

새로 나온 책

가짜뉴스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다면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가짜 뉴스는 많지만 이에 대응하는 진짜 뉴스를 찾기 쉽지 않다. 없는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전하는 가짜 뉴스는 금방 진실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문제는 진실을 왜곡하는 가짜뉴스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다.

저널리즘을 지킨다는 사명감이 사라진 자리에 재미와 흥미만이 가득한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다. 우리는 아무나,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드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다.

자질 없는 사람들이 자격 없는 거짓 콘텐츠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쉽게 만들고 빠르게 유포한다. 그래서 '아니 댄 굴뚝에 연기가 나기도 한다'.

가짜뉴스 유포 경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가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이어 인터넷 커뮤니티, 뉴스 댓글, 포털 내 카페, 블로그 순이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누구나 손쉽게 가짜 뉴스를 만들고 무차별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됐다.

진짜 문제는 가짜뉴스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다. 가짜 정보들은 팩트에 기반



가짜뉴스 시대에서 살아남기
류희림 지음/글로세움

을 두면서 소설을 가미해 노련한 사람도 속아 넘어가기 쉽다.

책은 가짜 뉴스 시대에 살아남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사람들에게 극도의 분노를 부추기는 미디어 콘텐츠는 대중을 선동하는 기만술이라 생각하고, 그 뒤의 진실을 알려고 노력할 것. 둘째, 뉴스의 행간에 숨은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냉철하게 사물을 바라보는 생각의 힘을 기를 것. 셋째, 중간 입장에서 양극단을 경계할 것. 넷째, 자극적인 뉴스를 거르고 필요한 정보는 검색해 찾아볼 것. 296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ik1@

우리가 매혹된 사상들

안광복 지음/사계절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인류의 의지와 신념은 사상으로 발현됐다. 사상은 거창하고 심오한 이념 같지만, 사실 보통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은 욕구와 욕망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추상적인 사상보다 과학이 추앙받는 시대에서 우리가 사상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 고대 그리스 공화주의부터 낭만주의, 신자유주의, 관료주의, 오늘날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사로잡은 사상의 흐름을 따라가며 인류가 꿈꿔온 희망을 성찰한다. 344쪽. 1만7800원.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재민 지음/창비



저자는 재판정을 떠난 전직 판사다. 책은 판사로서 마지막 재판을 진행하며 느꼈던 소회를 담았다. 저자는 피고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딱딱하고 준엄할 것만 같은 법정에도 사람이 살고 있음을, 법정이야말로 가장 뜨겁게 사람들의 삶이 펼쳐지는 장소임을 보여준다. '인간이 인간을 재판할 수 있을까',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재난과 비극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저자는 이 같은 질문을 던지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법정에 세운다. 312쪽. 1만5000원.

서울은 말이죠

심상덕 지음/윤근영 옮김/이봄



매일매일 얼굴을 바꾸는 글로벌 도시, 서울. 서울도 40년 전에는 골목마다 아이들이 뛰놀고, 집마다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이웃들이 사는 '동네' 같은 곳이었다. 옛장수의 노래가 들리고,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던 그때 그 시절, 우리가 몰랐던 서울. '이 도시를 채우고 있는 아름다운 기억들'이라는 부제처럼, 책은 사라져버린 서울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낭만을 그려냈다. 240쪽. 1만3500원.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마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
풍금소리처럼
은은히 당신께 가리

/고홍근 작

뻔한 송년회 NO! 특별한 연말을 위한다면

가랜드 등으로 홈파티 꾸미기 대신 호텔업계, 지중해식 등 세계 요리 드레스코드 갖춰진 선상파티까지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유통업계가 관련 상품·마케팅으로 분주하다. 벌써 11월 중순이다. 거리에 반짝이는 조명 장식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으며, 대형 백화점과 마트 앞은 거대한 트리가 고객을 맞이한다. 이미 연말을 앞두고 파티용품 매출은 늘어나는 추세이며, 호텔을 비롯한 관련 업계는 연말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있다.

◆연말에는 홈파티... 파티용품 매출 ↑

18일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옥션에 따르면 최근 한달(10월 7일~11월 8일) 동안 파티 용품 판매 신장률이 크게 늘었다. 가랜드는 전년 동기 대비 90% 늘었으며, 파티테이블용품과 크리스마스 소품은 각각 51%, 42% 늘었다.

옥션 측은 "연말이 다가오며 따라 파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파티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다 집에서 직접 돌잔치 등 홈 파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파티 용품 수요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연말을 맞아 인테리어 강좌도 인기다. 신세계백화점 아카데미는 겨울 학기에 '크리스마스 루돌프 리스' '딤티크와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홈스타일링' 강좌를 새로 신설했다.

◆이랜드의 특별한 송년회

이랜드의 대구 테마파크 이월드에는 오는 17일 제6회 별빛축제를 열었다. 이번 축제는 '천만송이 별빛 플라워가든: 꽃의 여왕'이라는 콘셉트로 13만평 규모의 공간을 빛과 꽃으로 채워 꽃의 여왕을 찾아가는 여정을 즐길 수 있다. 초대형 불꽃쇼와 함께 고객들이 드레스코드를 맞춰 입



이랜드크루즈 전경.



그랜드 힐튼 서울

고 즐기는 이색 파티도 마련됐다.

이랜드크루즈는 기업이나 단체 고객들의 송년회 모임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11월에 60명 이상 단체 고객이 디너뷔페 크루즈를 예약하는 경우 대선 무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11월 한정으로 즐길 수 있는 식사 메뉴도 준비했다. 나만의 레시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DIY 12종 샐러드인 '해피트리 샐러드', 신선한 새우와 육즙 가득한 소고기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리베리스테이크&랭고스타쉬림프', 유럽풍 디저트 '레몬케이크'와 '스노우 카나페' 등을 포함해 50여가지가 선상에서 펼쳐진다.

디너뷔페 크루즈는 총 90분간 선상 뷔페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상품으로 각각 여의도-선상대교-여의도, 여의도-한남대교-여의도를 회항하며, 이랜드크루즈 공

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호텔, 美食으로 고객 마음 사로잡아

호텔업계는 연중 가장 많은 매출이 집중되는 연말이 시작되는 만큼 소비자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그랜드 힐튼 서울은 전 세계 대표적인 건강식으로 알려진 지중해 요리를 컨셉으로 한 '세계 미식 기행-지중해 편'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머큐어 서울 엠베서더 강남 쏘도베 호텔 2층에 위치한 '쏘도베 레스토랑'에서는 11월, 12월 연말아 세계 요리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11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멕시코 퀴진' 프로모션은 멕시코 음식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뷔페 메뉴와 함께 7가지 메인 메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풍성한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위한 '이 앤드 디너' 프로모션은 메인 메뉴 한가지와 대표적인 건강식으로 알려진 지중해식 요리로 구성된 세미 뷔페 코너가 함께 준비된다. 12월 24일과 25일에는 등심스테이크와 랍스터 테일로 구성된 메인 디쉬가 추가로 제공된다. 해당 프로모션은 12월 한달 간 운영되며,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어머 이전 사야돼”... ‘홀리데이 에디션’ 인기

뷰티업계, 메이크업·기초 제품 등 크리스마스·연말 겨냥 상품 봇물

뷰티업계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홀리데이 에디션(Holyday Edition)'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인기 상품에 새로운 디자인의 용기나 패키지를 적용한 연말 한정판 에디션이 출시되고 있다. 업계는 '연말 특수'를 겨냥한 상품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급스러움' 강조한 연말 에디션

연말을 겨냥한 상품인 만큼 고급스럽고 우아한 패키지가 빠질 수 없다. 색상부터 용기까지 럭셔리함을 강조한 에디션이 눈에 띈다.

VDL과 입생로랑 뷰티(YSL Beauty)는 골드 컬러로 우아함을 더했다. VDL은 기존 베스트셀러인 프라이머, 치크, 립, 아이 메이크업 제품을 골드 패키지에 담은 'VDL 골드크러시'를 출시했다. 입생로랑 뷰티가 선보인 '골드 어트랙션'은 총 5종으로, 매트한 소재의 블랙 케이스에 입생로랑의 브랜드 로고인 카산드르가



비온드 '홀리데이 에디션'

반짝이는 골드 컬러로 화려하게 새겨진 것이 특징이다.

설화수와 오후도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에디션을 내놨다.

설화수의 '오색향연 홀리데이 컬렉션'은 한국의 다섯 가지 전통 색감과 다채로운 문양으로 밤하늘의 불꽃을 특별한 패키지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베스트셀러 제품인 '윤조에센스'와 '퍼펙팅쿠션'을 비롯해 스킨케어, 메이크업, 페이스 오일, 핸드크림 등 다양한 제품을 세트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오후가 한정판으로 출시한 '오후 더 퍼스트 제너추어 D.E.A.R 에디션'은 주얼리 스페셜리스트 윤성원 교수와 협업으

로 탄생했다.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자수정, 루비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D.E.A.R(Diamond-Emerald-Amethyst-Ruby) 반지'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됐다.

◆설레는 연말...감성 패키지 잇따라

연말의 설레는 분위기를 담아낸 에디션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개성있는 패키지를 통해 소장 가치를 높여 선물용으로도 제격이다.

헤라는 패션브랜드 블라인드니스와 협업해 '2018 홀리데이 컬렉션'을 선보였다. 베스트셀러인 '블랙 쿠션', '셀 에센스', '새도 듀오'와 함께 리퀴드 립 '루즈 홀리데이 슬로우 매트', 하이라이터와 컨투어링이 함께 구성된 '글로벌 컨투어 듀오'를 새롭게 선보였다.

비온드는 내달 개봉 예정인 디즈니의 새 영화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의 개봉을 기념한 홀리데이 에디션 6종을 출시했다. 현대적이면서도 사랑스러운 분위기의 색감으로 연말의 따스함을 표현했다.

베네피트는 유쾌한 브랜드 DNA를 담은 케이크 모양의 패키지 '2018 홀리데이 키트'를 선보였다. '트리플 데커 데커텐스', '컨셉션 큐티스', '구디 구디 고저스', '브라이트! 달라이즈!' 등 총 4종으로, 각기 다른 구성품을 포함하고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